

백두대간 인지도 조사를 통한 전통적 지리체계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정책제안 연구

김차권* · 정태열** · 강기래***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생명산업융합연구원 연구원

A Study for Education Policy Suggestions through the Survey of Baekdudaegan Awareness

Kim, Cha-Kwon* · Jung, Tae-Yeol** · Kang, Kee-Rae***

*Doctoral Cours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Institute of Comprehensive Bio industrial,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Baekdudaegan is Korea's traditional geographic system which incorporates the mountains and water to constitute an organism. In this system, the mountain ranges of the Korean peninsula is categorized into one Daegan, one Jeonggan and thirteen Jeongmaek: a classification that follows the principle that 'a mountain range separates watercourse (山自分水嶺).' Among them, the scope of this study encompasses one Daegan and nine Jeongmaek which fall in South Korea. As for the methodology, this study interviewed the visitors to Baekdudaegan in South Korea and analyzed 2,519 responses.

Among the interviewee, a very low proportion of 5.1% answered that they 'know' the traditional geographic system and those who 'know' Baekdudaegan were merely 39%. Only 11.8% said they 'know' Jeongmaek. Meanwhile, more than 60% answered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of Baekdudaegan was 'well conserved,' and this can lead to the judgment that the environment is well conserved. Many answered that it was desirable to include Baekdudaegan in the curriculum, most effectively from the primary school, for promoting the awareness of Baekdudaegan.

Currently, the traditional geological system is not included in the promulgated curriculu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fore, the lessons from this study lead to a suggestion that the curriculu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hall allot courses on this traditional geological system. This policy will inculcate the identity of the Korean nationality and the fundamental concept of conservation by stimulating the affection to our territory and environment.

Key words: Conservation, Curriculum, Geological System, Ministry of Education, Principle of a Mountain Range Separating Watercourse (山自分水嶺)

국문초록

산과 물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리체계인 백두대간은 산자분수령을 원리로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남한에는 1대간 9정맥이 있으며, 본 연구는 남한의 백두대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하여 2,51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통적 지리체계를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1%로 매우 낮았으며, 백두대간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39%, 정맥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11.8%에 불과하였다.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라고 판단한 응답률은 60%를 상회하여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백두대간의 홍보에 대한 방법은 교과과정에 편입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 **Corresponding Author** : Kang, Kee-Rae, Researcher, Institute of Comprehensive Bio industrial, Pusan National University. 1268-50, Samranggin-eup, Miryang-si, Gyeongnam, 50463, South Korea, Tel.: +82-55-350-5977, E-mail: kr4yn@naver.com

현행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에는 전통적인 지리체계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부의 교과과정에 전통적 지리체계에 대한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 국토와 환경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초적인 자질을 심어줄 것이다.

주제어: 교육과정, 교육부, 산자분수령, 자연환경보전, 지리체계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기반하여 독특하게 설정된 전통적 지리체계인 백두대간(白頭大幹)은 인간의 생활공간을 자연과 더불어 유기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파악된 독창적인 공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에서 끝나는 약 1,400km의 산줄기이다. 이 중 남한은 강원도 고성 의항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약 701km의 길이이다[1]. 산맥이나 산군을 분류하는 세계적인 기준은 지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은 산맥을 산과 물의 관계를 통한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개념과 명칭이 시작된 신경준의 「산경표(山經表)」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의 체계를 1대간 1정간, 13개의 정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남한은 1대간 9정맥이 속한다. 이러한 백두대간 아래 각 정맥과 그 아래 기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위계를 가진 독창적인 지리체계이다.

백두대간에 적용된 산군의 개념은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 산은 물을 가르지 않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에 기초한 분류 체계이다. 최초의 언어적 등장은 도선(道諫, 827~898)의 「옥룡기(玉龍記)」에 '우리나라의 지맥은 백두산에서 일어나 지리산에서 끝났으며 그 산세는 뿌리에 물을 품은 나무줄기의 지형을 갖추고 있다.(我國始于白頭終于智異 其勢水根木幹之地)'라는 설명[2]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으며, 「고려사(高麗史)」,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산수고(山水考)」, 「산경표」 등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등장한다.

백두대간의 자연생태 현황 중 식물상의 경우 우리나라 관속 식물 4,881분류군[3]의 38.3%(1,867분류군), 우리나라 특산식물 328분류군[4]의 25.3%(83분류군)가 백두대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물상의 경우에도 반달곰, 산양, 수달, 표범 등 상징적인 희귀 및 멸종위기종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

백두대간의 존재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보호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태, 역사체험 장소로서의 기능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고유의 지리인식 개념이자 생태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백두대간의 명칭과 개념이 거의 사장되어 왔고, 일제강점기부터 지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산맥체계를 지리교과서에 기재하여 교육되어져 왔다. '백두대간'이 근래에 다시 부각된 것은 1980년대 '산경표'를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실체를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온 산맥체계를 기준으로 한 지리체계 교육에 비해 백두대간은 정식 교과과정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두대간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지리체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백두대간과 각 정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근래 들어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은 점차 많이 노출되고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고유의 지리체계의 인지 정도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며, 지리 인식체계의 확산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생태계의 핵심축이며, 자연환경의 보고이자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백두대간의 국민적 인식 확산으로 더 나은 환경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본 연구가 기초적인 자료 제공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백두대간에 대한 지리적 논의

백두대간과 장백정간, 그리고 각 정맥에 대한 최초의 명칭들은 산경표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백두대간의 시작을 백두산으로 하여 산의 족보를 기록한 내용이다. 「산경표(山經表)」의 정확한 편찬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조선 광문회 발간의 산경표 서문으로 봐서 이 책은 신경준이 편찬한 「산수고(山水考)」와 「문헌비고(文獻備考, 1770)」의 「여지고(輿地考)」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경표는 1913년

최남선 편으로 조선광문회에서 신활자로 간행한 것이 각처에 소장되어 전해지고 있다[5]. 산경표의 작성자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003년 한국지형학회에서 '한반도산지체계'에 대한 학회의 심포지움이 열리면서 '분수계'를 기준으로 산경표에서 제시한 전통적 지리체계는 산맥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지만 기존의 산맥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다[6]. 이는 아직까지 주류 지리학에서 지질을 기준으로 분류된 산맥에 비해 인문적 환경적으로 분류한 우리의 전통적 지리체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문적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경표 발견 이후 우리의 전통적 지리체계와 국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2000년대 들어 매우 활발해 졌다. 이는 지리정보에 대한 기술발달로 인해 국토의 지형을 보는 정보의 체계화와 세밀화 작업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고토분지로(小藤文次郎: 1856-1935)가 분류한 산맥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국의 산맥'에서 새로운 산줄기에 대한 연구와 제시를 하였으며[7], Son (2003)은 '분수계의 지리적 의의와 백두대간과의 연관성'을 발표하였다[8]. Park and Son은 DEM 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산줄기를 제안하기도 하였다[9][10][11]. 또한 Kim et. al.(2004)은 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줄기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6].

2018년 현재 지리교육에 대한 제목으로 논문검색을 하면 [12], 약 400여 편의 논문들이 지리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전통적 지리체계 인식이나 백두대간에 대한 인지도조사 및 이에 대한 홍보의 의견 제시나 정식 교과과정 편입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체계가 산맥 개념으로 교육되어진 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에 의해서이다. 그는 1900년과 1902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지질구조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1903년 동경제국대학기요(東京帝國大學紀要)에 An Orographic Sketch of Korea(조선산악론)이란 영문논문을 통해 한국의 산맥을 발표하고 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 등의 명칭을 부여 했고 아직까지 이를 기준으로 지리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다[13].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주로 국어, 국사, 한국지리 분야를 교육과정에서 비중을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관·공립학교에서는 일찍부터 일제의 통제로 약화, 변질되었고 일제시대 한국지리 분야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내용 등은 일제에 의해 변질된 상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인문지리보다는 자연지리에 중점을 두어 지리교육에서 '인간'의 요소를 가능한 한 제거한 내용이 교육되었다[14].

Park(2008)은 현행 교과서의 산맥체계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하였고, 그 문제점으로 과학적 검증 없이 과거의 산맥체계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점과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6]. 한편으로 응답자들은 산경표의 산맥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고 산맥에 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과 참고서를 통해서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교사들은 심정적으로 산경표의 산맥체계를 선호하고 있지만, 산경표의 산맥체계만을 가르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일단 교과내용으로 제시된 현행 산맥체계는 가르치면서 산경표의 전통적 산맥체계를 가르치는 합리적 선택을 주로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산경표의 산맥체계는 꼭 가르쳐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6].

이상과 같이 전통적 지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전통적 지리체계의 새로운 발견과 이에 대한 대안의 제시 등은 지리학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백두대간의 대국민 홍보와 인식도 향상을 위한 연구들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백두대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통적 지리체계의 인식도 조사를 통한 가장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의 방법을 제시해 정책에 제안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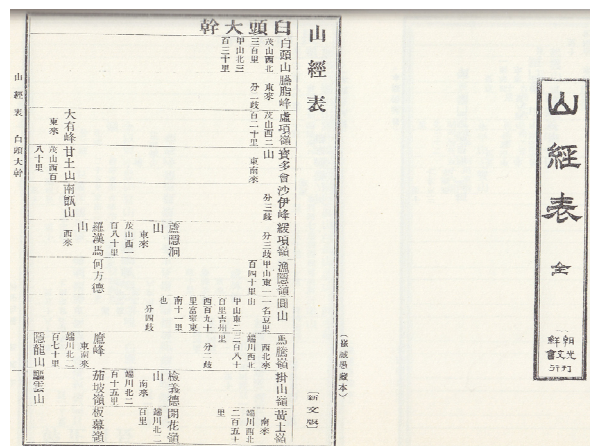


Figure 1. Sankyongpyo, Edition of Chosunkwangmunheo

II. 연구방법

2003년 12월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5년이 흐른 지금 '백두대간'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하게 회자되고 있다. 법률적 지위를 가진 백두대간에 대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탐방객이나 등산객들은 실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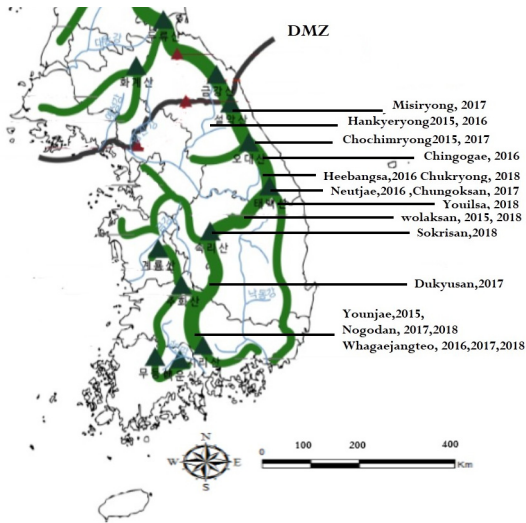


Figure 2. Survey Point of Baekdudaegan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두대간 연구 수행자들과 백두대간 관련 브로슈어, 백두대간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 등을 수집하여 전문가 토의(brainstorming) 과정을 거쳐 설문 항목을 선정하였다. 설문의 항목은 백두대간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지리체계 구분기준인 산자분수령에 대한 인지여부,

백두대간과 그 하위산군인 8개 정맥에 대한 인지도, 백두대간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인지여부, 백두대간의 홍보 방법에 대한 질문, 전통적 지리체계인 백두대간과 각 정맥에 대한 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보존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백두대간 구간 중 남한 지역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의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4년간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지는 백두대간 방문자를 대상으로 1:1 대면 설문하였으며 등반객이나 방문객이 비교적 많이 몰리는 주요 등산로, 주요휴게소나 고갯마루, 많이 알려진 등산코스의 진·출입구에서 배부 및 수집하였다. 표본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 하였으며, 응답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고, 솔직한 응답을 얻기 위해 개인적인 질문을 자제하였다. 설문지는 총 2,622부를 수집하여 불성실 설문지와 미완성 설문지 103부를 제외한 2,51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의 도구는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세부적 내용은 백두대간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대국민 홍보의 방법, 그리고 교육의 시기, 백두대간에 대한 환경적 인지도 확산을 위한 방법론 등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 중 특히 교육부에서 고시된 지리교과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통적인 지리체계에 대한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Table 1. Survey's Yearly Collection

Year	Location		Collection	Analysis	
2015	Younjae	117	114	301	285
	Wolaksan	39	38		
	Chochimryong	44	35		
	Hankyeryong	101	98		
2016	Neutjae	94	91	722	689
	Chingogae	132	129		
	Hankyeryong	121	111		
	Whagaejangteo	136	130		
	Heebangsa	239	228		
2017	Nogodan	228	228	805	780
	Misiryong	80	75		
	Sokrisan	187	187		
	Dukyusan	65	64		
	Chochimryong	62	59		
	Chungoksan	61	58		
	Whagaejangteo	122	109		
2018	Whagaejangteo	202	198	794	765
	Wolaksan	118	114		
	Youilsa	175	162		
	Whagaejangteo	156	153		
	Chukryong	143	138		
Total			2,622	2,519	

III. 결과 및 고찰

1. 백두대간과 전통적 지리체계에 대한 인식

백두대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며, 연령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응답자의 학력수준은 대졸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12.5%를 차지하고 있었다.

Table 2. Individual Characteristics by Interviewee

Classification		Interviewee	Percent
Sex	Male	1,427	56.6
	Female	1,092	43.4
Age Group	Under the 20's	567	22.5
	Under the 30's	625	24.8
	Under the 40's	782	31.0
	Under the 50's	376	14.9
	Under the 60's	146	5.8
	Over the 60's	23	0.9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104	4.1
	High School	776	30.8
	Junior College	236	9.4
	University	1,089	43.2
	Above Graduate School	314	12.5
Total		2,519	100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라는 말은 '산은 물을 스스로 가리지 않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라는 산경표의 기본 원리이다. 이는 우리의 산과 물에 대한 기본적인 자연관을 나타내는 말이며 강과 산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산경표와 기본적인 산수관에 대한 질문에서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률은 5.1%의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산자분수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며, 기본적인 산군의 구분원리에 대한 홍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방법은 책자나 미디어 등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적 지리관에 대한 홍보,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에서 정식으로 교육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백두대간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39%가 백두대간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모른다'는 응답자는 22.2%를 보이고 있다.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는 1980년 초 고서적 수집가이자 등반가로 알려진 이우형에 의해서 조선시대 지리서인 산경표가 발견되었고, 1986년부터 언론에 '백두대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부터 약 100여 년 간 단절되었던 전통지리체계인 백두대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2003년에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빠른 시간에 백두대간이라는 언어의 확산과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은 백두대간이라는 용어와 구분원리가 우리의 정서와 잘 합치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산경표에 의한 백두대간의 체계는 1대간 1정간 13정맥의 15개 산줄기로 구분되어 있다. 산경표의 서술체계가 백두산을 근간으로 산의 족보를 서술하듯이 1,650개의 지명과 1,500여 개의 산과 고개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산들의 기술을 백두산을 시작으로 각 대간, 정맥, 정맥의 하부인 지류(支流)까지 구분하여 기맥(岐脈), 지맥(支脈), 분맥(分脈), 단맥(短脈)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하부정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1.8%, '모른다'는 응답자가 51.0%로 하부 정맥에 대한 인지도는 백두대간의 인지도에 비해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41.1%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백두대간이라는 단어와 심상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중요한 생태축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Questions on the Awareness of the Mountain Range System

Classification	Awareness of the Mountain Range System		Awareness of Baekdudaegan		Awareness of Jeongmaek		Awareness of the Protective Legislation	
	Respondent	Percent	Respondent	Percent	Respondent	Percent	Respondent	Percent
Know	129	5.1	983	39.0	297	11.8	631	25.0
Do Not Know	1,356	53.8	559	22.2	1,284	51.0	1,035	41.1
Only Heard About It	1,034	41.0	977	38.8	938	37.2	853	33.9
Total	2,519	100	2,519	100	2,519	100	2,519	100

2. 백두대간 환경조건과 홍보의견 제시

2015년 산림청 기준으로 백두대간의 보호지역은 약 275,000ha로 전 국토의 2.6%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관속식물 분류군의 38.3%, 특산식물 분류군의 25.3%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 보존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방문자의 설문에서 '대체로 잘 보존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이 유보적인 의사를 표현한 '보통이다'가 26.2%, '잘 보존되고 있다'라는 응답은 20.1%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3년부터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적절한 휴식년제의 실시로 자연환경이 대체로 잘 보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4. Whether the Natural Environment in Baedudaegan is Properly Conserved

Classification	Number of Interviewees	Percent
Not Conserved at All	75	3.0
Somewhat Not Conserved	294	11.7
Neutral	659	26.2
Generally Conserved	984	39.1
Well Conserved	507	20.1
Total	2,519	100

백두대간과 정맥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면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인지할지에 대한 설문에서 '교과과정에 편입시켜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이 향후 국민들의 인식도가 가장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44.2%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인터넷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자가 그 다음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Table 5. Effective Promotion Method for Baekdudaegan and Each Jeongmaek

Classification	Number of Interviewees	Percent
Education from the Early Stage by Including in the Curriculum	1,113	44.2
Internet	531	21.1
TV, Radio, etc	389	15.4
Newspaper and Magazines	219	8.7
Promotional Booklets	267	10.6
Total	2,519	100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체계를 교육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7.1%가 초등학교부터 정식교육과정에 편입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6. Desirable Onset of Educating the Traditional Geographic System

Classification	Number of Interviewees	Percent
Start Formally Educating from Primary School Period	1,438	57.1
Formally Include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83	3.3
Educate in Parallel with the Mountain Range Typology	662	26.3
Educate Independent of Curriculum	336	13.3
Total	2,519	100

현행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을 살펴보면 사회과 교육과정에 한국지리과목의 목표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토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지리적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의사 결정 능력 및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며,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데 있다[15]."고 정의되어 있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지리체계에 대한 교육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맥에 대한 정식 교과 과정의 시작은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부도에서 그림과 함께 교육되고 있다. 책의 내용은 남한지역의 태백산맥, 광주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등 5개 산맥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사회과 부도나 지리부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리체계인 백두대간에 대한 교육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교육부에서 고시된 지리교육의 체계는 교육영역과 이에 따른 내용적 요소로 구분된다. 먼저 교육영역은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기후환경과 인간생활,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생산과 소비의 공간,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등 7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지형환경과 인간생활 분야의 교육내용은 한반도 형성과 산지의 모습,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화산지형과 카르스트지형 등 3개의 내용요소로 제시되어 있다. 백두대간에 대한 교과 과정에 대한 교육은 지형환경과 인간생활 영역에 '전통적 지리체계 인식'의 항목으로 교과과정에 편입 하여 기존의 지리교육과 병행하여 전통적 지리인식체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백두대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 이해를 기초로,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국토와 환경, 한국 사회 제도의 현실과 변화, 지구촌의 특징과 변화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구성되어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지리

Table 7. System and Performance Criteria of Geology Curriculum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ector	Contents
Recognition of the Territory and Geological Information	The Location of the Territory and Territorial Disputes
	Change in the Territory Recognition
	Geological Information and Survey
Topographical Environment and Human Life	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ppearance of Mountains
	River-Side Terrain and Coastal Terrain
	Volcanic Terrain and Karst Terrain
Climatic Environment and Human Life	Climat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
	Climate and Resident's lives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Change of Residential Space and Regional Development	Changes in Villages and Urban Development
	Urban Structure and Metropolitan Area
	Urban Planning and Re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 and Spatial Inequality
Space for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ncept of Resources and Problems Thereof
	Change in Agriculture and Problems in Rural Areas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gional Change
	Development of Traffic and Communication and the Change of Service Industry
Demographic Change and Multicultural Space	Population Structure and Population Distribution
	Population Problems and Spatial Changes
	Migrants and Multi-Cultural Space
Understanding Regions of Korea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Regions
	Region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Unified Korea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Life of Residents

체계의 인식에 대한 대국민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정식 교과 과정에 편입하여 교육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우리나라 전통의 인문적, 지리적, 생태적 지리체계의 집합인 백두대간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그 존재가 잊혀지고 지질을 기준으로 한 산맥도를 초등학교부터 배워왔다. 국토의 2.6%에 불과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생태적으로 가지는 가치는 관속식물의 38.3%, 특산식물의 25.3%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 주어야 할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보호와 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공감대의 형성은 백두대간에 대한 지식과 애정을 심어주는 홍보와 교육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두대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인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백두대간 홍보의 방법, 그리고 백두대간에 대한 교육의 시기는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적절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지는 백두대간이며, 백두대간의 인지도, 홍보 방법, 백두대간에 대한 교육의 시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인지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질문의 대상자는 백두대간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519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우리의 전통적 지리체계 원리에 대한 질문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5.1%로 매우 낮았다. 백두대간에 대한 인지도 설문에서 약 39%가 백두대간을 알고 있으며, 하부정맥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1.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방법은 책자나 미디어 등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적 지리관에 대한 홍보,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에서 정식으로 교육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응답자들은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체로 잘 보존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1%, '잘 보존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0.1%를 차지하여 비교적 자연환경의 보존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백두대간과 각 정맥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과과정에 편입하여 조기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44.2%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의 필요성을 선택한 응답자가 21.1%의 비율을 보였다.

다섯째,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교육은 어느 시기에 시키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서 초등학교부터 정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1%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고시의 내용을 보면 지리과정에 대한 교육의 내용체계나 성취기준에 전통적인 지리체계 교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백두대간의 가장 효율적인 홍보 방법은 초등학교부터 정식 교과과정으로 편제하여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백두대간에 대한 분류의 외면은 지리학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인문적이고 생태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인문학, 전통조경학이나 임학 분야에서도 함께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초적인 자료 제공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백두대간의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백두대간에 대한 명칭이나 학문적 타당성 등은 지리학 분야에서 산맥체계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이후에는 뚜렷한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지리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리학계의 의견을 개진하여 정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은 산맥의 물리적인 성격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문화, 교육, 전통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추후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REFERENCES

[1] Korea Forest Service 2nd Natural Resources Change Survey and Management Practice Study of the Baekdudaegan Mountains Comprehensive report.

[2] www.forest.go.kr
 [3] www.nature.go.kr/kpni
 [4] Korea National Arboretum(2005). Korea Peninsula Endemic Vascular Plants List.
 [5] Kim, Y. P., Lim, E. S., and Kim, Y. J.(2004). Restructuring Mountain Systems in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Mountain Range Analysi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nyang, Gyeonggido.
 [6] Park, C. W.(2008). A Research of Educational Implication on Mountain Range and the Recognition of Geography Teacher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6(1): 27-39.
 [7] Kwon, H. J.(2000). Mountain Rang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5(3): 389-400.
 [8] Son, I.(2003). Special Symposium: Mountain Systems in Korea Peninsula. Journal of the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10(1): 110-119.
 [9] Park, S. J. and Son, I.(2005a). Discussions on the Distribution and Genesis of Mountain Ranges in the Korean Peninsular (I) : The Identification Mountain Ranges using a DEM and Reconsideration of Current Issues on Mountain Range Map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1): 126-152.
 [10] Park, S. J. and Son, I.(2005b). Discussions on the Distribution and Genesis of Mountain Ranges in the Korean Peninsular (II) : The Proposal of 'Sanjulgi - Jido(Mountain Ridge Map)'.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3): 253-273.
 [11] Park, S. J. and Son, I.(2008). Discussions on the Distribution and Genesis of Mountain Ranges in the Korean Peninsular (III) : Proposing a New Mountain Range Map.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3): 276-295.
 [12] www.kiss.kstudy.com
 [13] Koto, B.(1903) An Orographic Sketch of Korea. Journal of the College of Science. Vol 19. Article 1. Imperial University. Tokyo, Japan.
 [14] Nam, S. J.(1986). A Study of Geography Education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the Jatanese Colonialism. A book Geography Education. 17(-): 1-21.
 [15] Ministry of Education(2015).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No 2015-74 [Separate issue 7].
 [16] Ministry of Education(2015).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No 2015-74 [Separate issue 5].

원 고 접 수 일: 2018년 5월 1일
 심 사 일: 2018년 5월 30일 (1차)
 : 2018년 6월 15일 (2차)
 게재 확정 일: 2018년 6월 15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